

## 주요 내용

1. [가정의 달 리포트 2 : 한국인의 워라밸]  
한국인, '가정/워라밸'보다 '일' 중요시!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미래 직업 보고서
  - 2) 지방 소멸위험 지역 현황
  - 3) 미국 개신교인의 온라인 교회에 대한 선호도



# 한국인, ‘가정/워라밸’보다 ‘일’ 중요시!

일(Work)과 생활(Life)의 균형(Balance), 즉 ‘워라밸’은 오래전부터 많은 직장인의 화두이다. 일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가정생활도 소중하며, 포기할 수 없다는 외침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은 아직은 워라밸과는 거리가 먼 편이다.

한국인의 노동(근무)시간을 보면 OECD 38개국 중 중남미 4곳을 제외하고는 연 1,915시간으로 노동시간 최장국이다. OECD 평균(2021)과 비교하면 연 200시간가량 더 길게 일하는 셈이다. 실제로 근로자 4명 중 3명은 한국 사회가 ‘워라밸’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직장생활 중 느끼는 감정으로 근로자 절반 이상은 ‘피곤함’을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임금’ 중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이러니하게도 4명 중 3명이 ‘더 많은 임금’을 선택해 ‘가정, 여가 생활’보다는 ‘일’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넘버즈 191호>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워라밸’에 관한 여러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목회자에게는 성도 가정/직장 등 삶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성도들에게는 현재 자신의 워라밸 수준을 가능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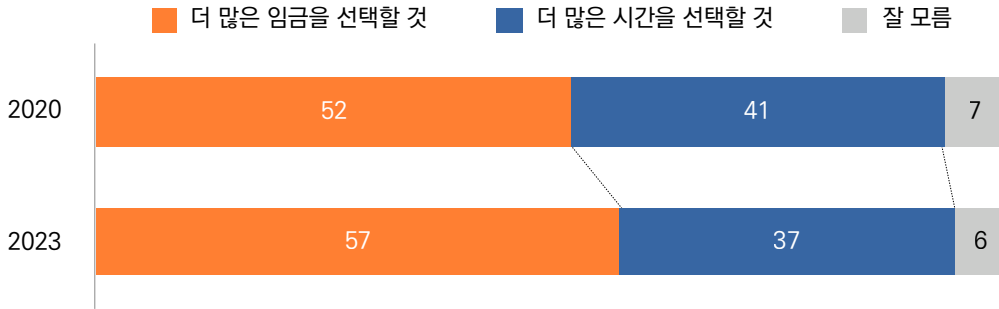
# 01

## [한국 근로자의 삶]

### 근로자 10명 중 6명(57%), 선택할 수 있다면 '시간'보다 '돈'!

- ▶ 현재의 삶에서 '더 많은 임금'과 '더 많은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57%가 '더 많은 임금'을 선택했다. 이는 3년 전 동일 질문에 비해 5%p 증가한 것이다.

[그림] '더 많은 임금' vs '더 많은 시간' 선호도 (근로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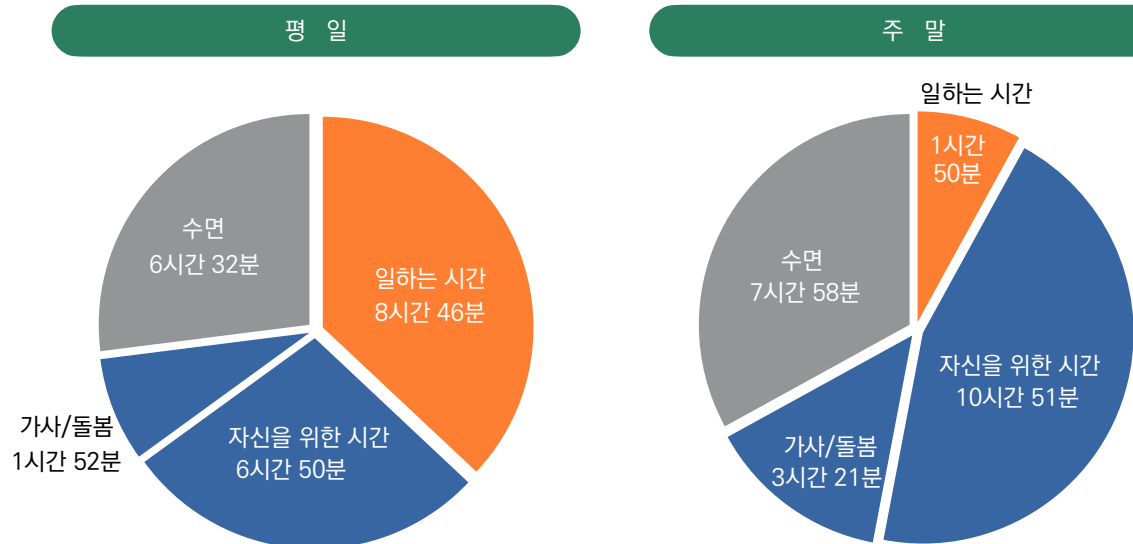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인 워라밸 및 주 52시간 근무 제도 관련 인식 조사, 2023.02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2.03.~02.07)

## ◎ 한국의 근로자, 주말에도 일한다!

- ▶ 평일과 주말 시간 사용에 대해 각각 살펴봤다. 평일 '일하는 시간'(출퇴근 시간 포함)은 평균 8시간 46분으로 하루 중 가장 많았고, 수면 시간은 7시간이 채 못 되었다. 주말의 수면 시간은 평일보다 86분이 많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여가, 휴식, 사회 활동 등)은 4시간가량이 더 많았다.
- ▶ 주말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1시간 50분으로 주중에 이어 주말까지도 일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볼수 있다.

[그림] 하루 평균 시간\*\* (근로자)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2022.12. (만 19~59세, 22,000명, 온라인 조사, 2022.09.20.~1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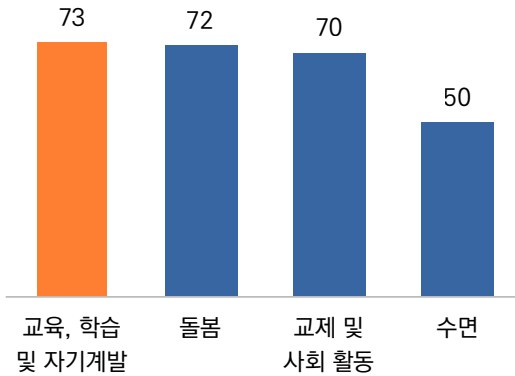
\*\*일하는 시간 : 근로, 출퇴근.

자신을 위한 시간: 여가, 사회활동, 휴식, 자기계발, 식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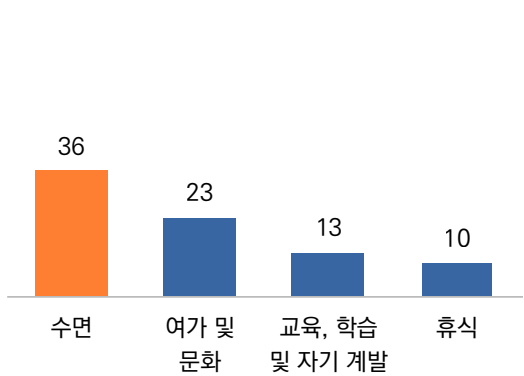
## ◎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 “잠잘 시간이 더 있었으면”!

- ▶ 위에서 언급한 수면, 근로, 교제 등의 일상생활 시간 중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영역을 확인한 결과, ‘교육, 학습 및 자기계발’ 73%, ‘돌봄’ 72%, ‘교제 및 사회 활동’ 70%로 미충족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 ▶ 일상생활시간 중 시간을 증가시키고 싶은 활동으로는 수면을 36%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여가 및 문화’ 23%, ‘교육, 학습 및 자기 계발’ 13%, ‘휴식’ 10% 등의 순이었다.

[그림] 일상생활 시간 중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영역\*\*  
(근로자, 상위 4위, %)



[그림] 일상생활 시간 중 증가 희망 영역  
(근로자,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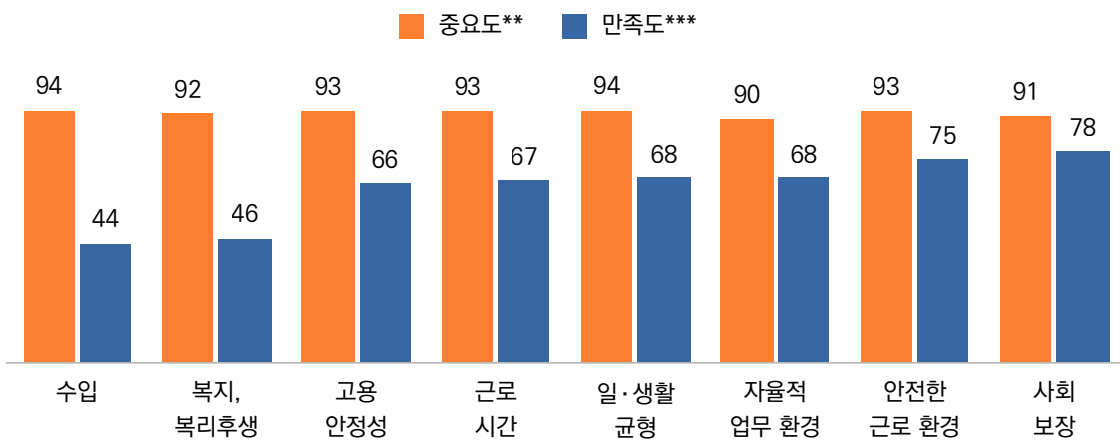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2022.12. (만 19~59세, 22,000명, 온라인 조사, 2022.09.20.~10.07.)  
\*\*4점 척도로 '매우 부족+부족한 편' 비율

## ◎ 일하는 조건으로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수입’!

- ▶ 일자리의 다양한 여건/조건 8가지 항목을 제시한 후 중요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90%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중 ‘수입’과 ‘일·생활 균형’이 중요하다(중요한 편+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안전한 근로 환경’ 93%, ‘근로 시간’ 93% 등의 순이었다.
- ▶ 현재 근로 여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 ‘일·생활 균형’ 등은 60~70%대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수입’ 44%와 ‘복지·복지후생’ 46% 두 영역만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 ▶ 특히 ‘수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조건이나 만족도는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일하는 여건 및 조건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근로자, %)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2022.12. (만 19~59세, 22,000명, 온라인 조사, 2022.09.20.~10.07.)  
\*\*4점 척도로 '중요한 편+매우 중요하다' 비율  
\*\*\*4점 척도로 '매우 만족한다+만족한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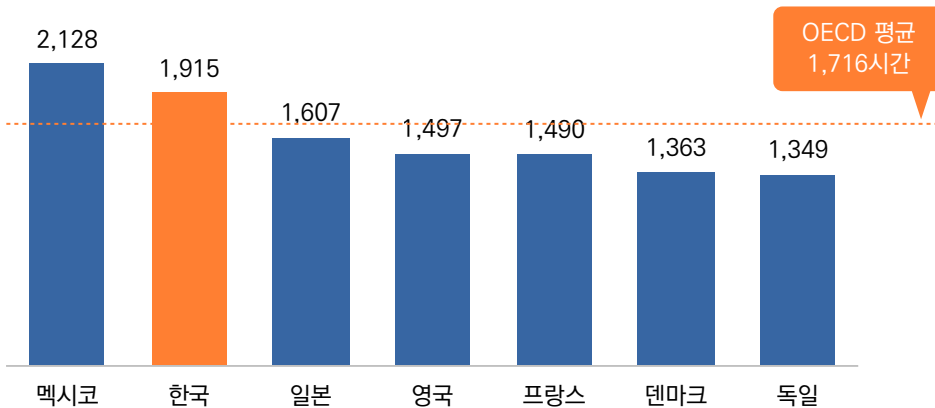
# 02

## [한국 근로자의 일과 환경]

### 한국인의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보다 200시간 더 많아!

- ▶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존 주 52시간 근무제를 효율적인 근무 시간 관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노동부에서 주 69시간 근무제를 언급하여 논란이 일었다가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실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 현실은 어떠한가? 이를 파악하고자 OECD 주요국과 한국의 연간 실노동 시간을 비교해 보았다.
- ▶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조사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연간 실노동 시간은 1,915시간으로 중남미 4개국(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을 제외하면 1위였고, 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무려 200시간가량이나 길었다.

[그림] OECD 주요국 연간 실노동 시간 (전체 근로자, 2021년 기준,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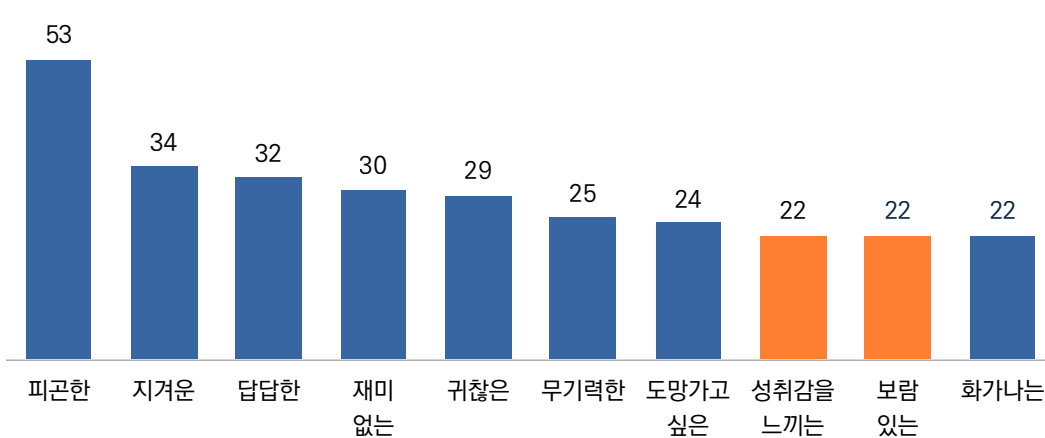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과 주요 선진국 노동시간 규제 현황 비교 보고서(KIPA 이슈 페이퍼 120호), 2022.12

### ◎ 직장생활은 피곤하고 지겹고 답답해!

- ▶ 근로자에게 평소 직장생활 중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는지 물었다. 2명 중 1명은 '피곤한'(53%)을 선택했으며, 3명 중 1명은 '지겨운'(34%), '답답한'(32%)을 선택했다. 가장 많이 선택한 10위까지의 감정 중 긍정적인 감정은 '성취감을 느끼는'(22%)과 '보람 있는'(22%) 2개에 불과했다.

[그림] 직장생활 중 느끼는 감정 (근로자, 중복응답, 상위 10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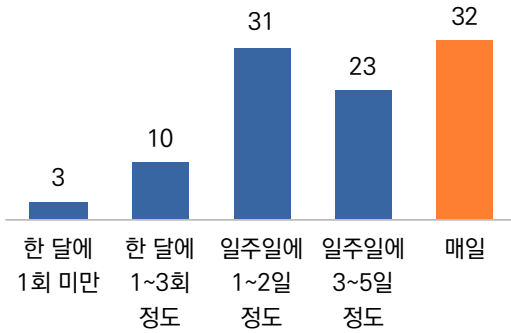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인 워라밸 및 주 52시간 근무 제도 관련 인식 조사, 2023.02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2.03.~02.07)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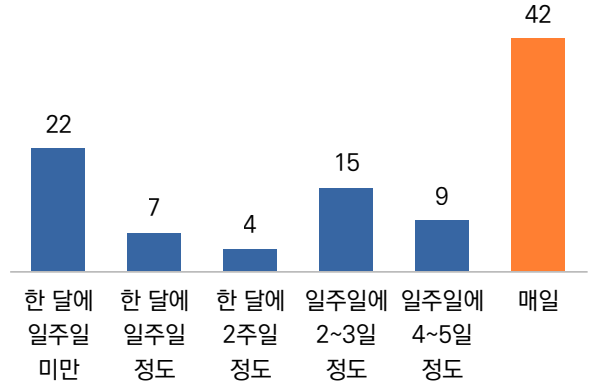
## [한국 근로자의 가사와 돌봄] 근로자 3명 중 1명은 가사 노동 병행!

- 가정을 위한 시간인 가사와 돌봄 활동을 살펴봤다. 가사의 경우 매일 한다는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돌봄 대상자가 있는 근로자가 매일 돌봄을 하는 비율도 42%로 나타나 가사나 돌봄이 근로자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림] 가사 빈도 (근로자, %)



[그림] 돌봄 빈도 (돌봄 대상자 있는 근로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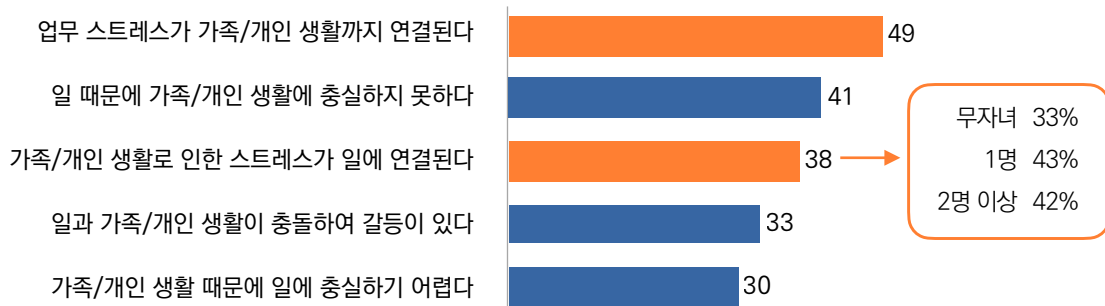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2022.12. (만 19~59세, 22,000명, 온라인 조사, 2022.09.20.~10.07.)

### ◎ 근로자 절반, “업무 스트레스가 가정까지 연결된다!”

-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항목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했다. 그 결과, ‘업무 스트레스가 가족/개인 생활까지 연결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달했고, ‘일 때문에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도 41%였다. 업무/스트레스 발생→가족/개인생활 영향·갈등→스트레스 발생→일(업무) 영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유자녀 가정의 경우 ‘가족/개인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에 연결된다’가 40%대로 ‘무자녀 가정’ 33% 대비 훨씬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육아와 일의 병행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일과 생활 균형 문제 동의율\*\* (근로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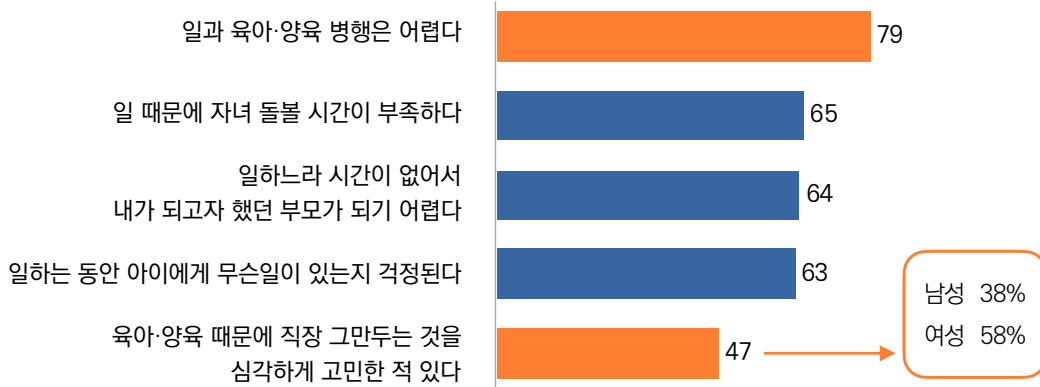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2022.12. (만 19~59세, 22,000명, 온라인 조사, 2022.09.20.~10.07.)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비율

## ◎ 자녀 있는 여성 근로자 10명 중 6명, 육아로 퇴사 고민 경험 있어!

- ▶ 자녀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일과 양육 병행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일과 육아·양육 병행이 어렵다’에는 10명 중 8명이 ‘그렇다(매우+그런 편)’고 응답해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고충을 내비쳤다. 다음으로 ‘일 때문에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되고자 했던 부모가 되기 어렵다’ 등의 항목에서 60%대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다.
- ▶ ‘육아·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성은 38%, 여성은 무려 58%가 ‘그렇다’고 답해 성별에 따른 입장차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림] 일과 양육 병행에 대한 문제 동의율\*\* (유자녀자, %)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2022.12. (만 19~59세, 22,000명, 온라인 조사, 2022.09.20.~10.07.)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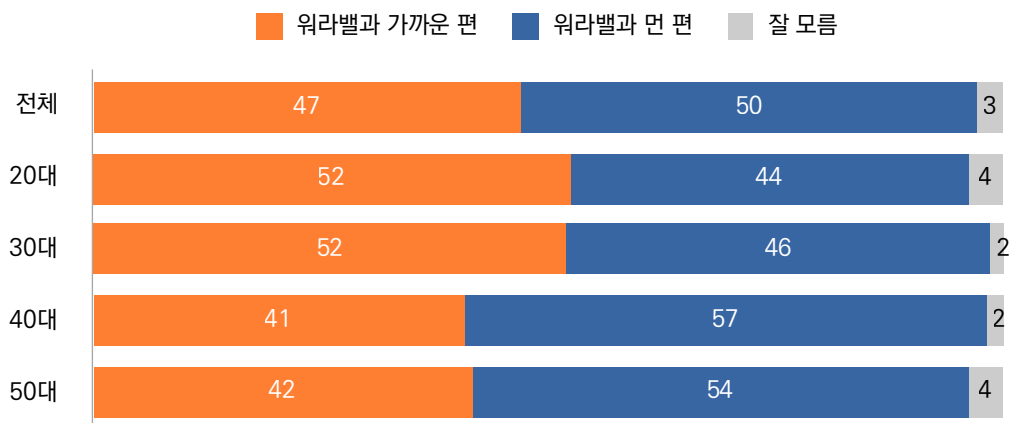
# 04

## [한국 근로자의 워라밸]

### 40~50대 근로자 절반 이상, '나의 삶, 워라밸과 거리 멀다'!

- ▶ 본인의 삶에 대한 워라밸 평가에서 워라밸에 가깝다고 평가한 경우는 46%였고, 절반은 워라밸과 먼 편이라고 응답했다. 그중 40대가 워라밸과 먼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로 가장 높았다.

[그림] 본인의 삶 '워라밸' 평가 (근로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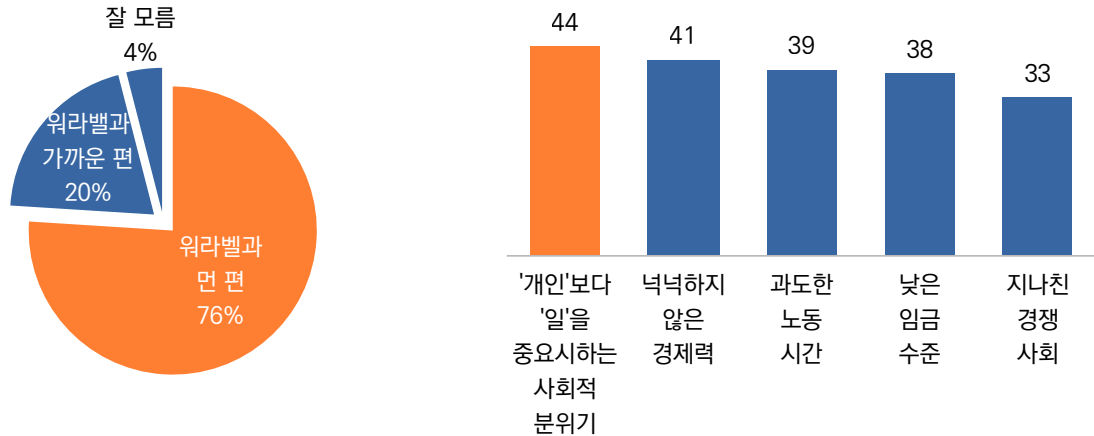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인 워라밸 및 주 52시간 근무 제도 관련 인식 조사, 2023.02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2.03.~02.07)

## ◎ 한국사회, '워라밸과 거리 멀다' 76%가 동의!

- ▶ 이번에는 응답자 본인이 아닌 한국사회 전반의 워라밸에 대해 물었다. 한국사회의 '워라밸' 문화 정착정도에 대해 묻은 결과, 4명 중 3명(76%)이 '거리가 멀다'고 응답해, 워라밸 문화가 한국사회에 정착되지 못한 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개인보다 일을 중시하는 분위기', '경제력 부족', '시간이나 임금 관련한 노동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림] 한국사회 '워라밸' 문화 정착 정도 (근로자) [그림] '워라밸' 문화 정착 방해 요소 (근로자, 중복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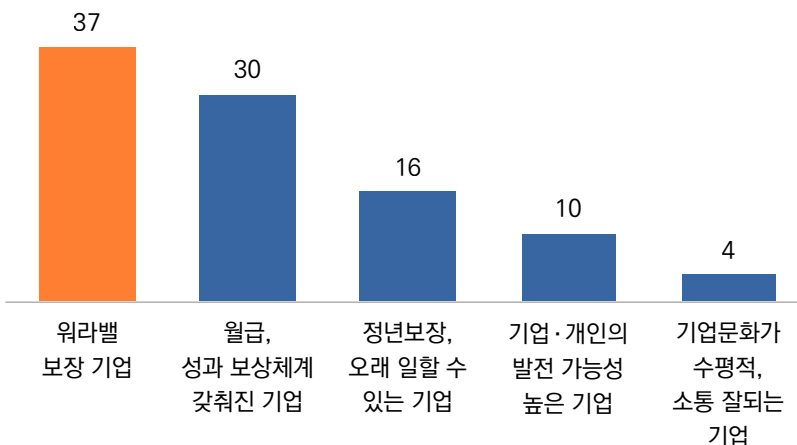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3 직장인 워라밸 및 주 52시간 근무 제도 관련 인식 조사, 2023.02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2.03.-02.07)

## ◎ 그러나 MZ세대는 다르다, '급여'보다 '워라밸'!

- ▶ MZ세대들은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3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뒤이어 '월급과 성과 보상체계가 잘 갖추어진 기업'(30%), '정년 보장 등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16%) 순으로 나타났다. 월급과 정년 보장이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림] MZ세대의 직장 선택 기준 (%)



\*자료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인) 인식조사', 2023.04.10. (모노리서치, MZ세대 827명 대상 조사)



‘일’은 현대인에게 무엇일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생계 수단? 자아실현? 사회적 가치 생산? 사회적 소속감? 농업사회에서는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지 않아 일과 생활이 중첩되어 있었지만, 근대 들어서 일과 개인의 생활은 분리되었다. 일에 치중하면 자연스럽게 생활이 소홀해져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심리적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반면에 생활에만 집중하면 직장에서 낙오되거나 사업이 부진해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일(Work)과 생활(Life)을 균형적(Balance)으로 유지하는 것, 즉 워라밸이 중요한 화두이다.

「넘버즈」 191호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워라밸의 실현 정도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워라밸의 삶을 사느냐는 질문에 47%만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5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워라밸의 삶이 절반의 국민에게는 아직 남의 일일 뿐이다. 재미있는 것은 연령에 따라 워라밸의 삶을 사는 데서 차이를 보인 점이다. 20대와 30대는 각각 52%가 워라밸의 삶을 산다고 했는데, 40대와 50대는 그보다 약 10%p 낮은 41% 내외만이 워라밸의 삶을 산다고 응답해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보다 워라밸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사회에서 워라밸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일까? 첫째는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한국 직장인은 주당 약 40시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 약 37시간, G7 국가 평균 35시간보다 긴 노동 시간이었다. 한국 직장인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더 긴 노동 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고 워라밸을 즐길 수 없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적 수입이 적기 때문에 워라밸을 즐길 수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OECD 국가의 중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물가, 높은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인해서 생활비 부담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sup>1)</sup> 이번호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여가생활 불만족자의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높게 응답한 것이 ‘경제적 부담’(38%)이었다. 여가 시간이 주어져도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비용이 부담스러우므로 여가 생활을 즐

기지 못하는 것이다. 셋째는 일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사와 돌봄 노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경우 매일 가사 일을 한다는 비율이 32%를 차지했고, 돌봄 대상자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42%가 매일 돌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와 돌봄은 주로 여성이 많이 하는데, 자녀 있는 여성 10명 중 6명이(58%) 육아와 양육 때문에 직장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30대 이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워라밸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은 교회에서 교회 봉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조사에 따르면<sup>2)</sup> 5060세대가 교회 봉사를 하는 비율은 65.2%였는데 3040세대는 40.9%로 24.3%p나 낮았다. 3040세대는 자기와 가족의 생활을 중시하므로 교회 봉사를 그만큼 피하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질문을 2030세대에 하면 더 응답률이 낮았을 것이다. 교회 봉사하는 분들의 나이를 보면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워라밸을 추구하는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 워라밸이 단순히 자기 소비적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하지 않고 자신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양하는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바꾸면 자기의 여유 시간을 좀 더 창조적이고 유익하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교회 봉사가 단순히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북돋는 것으로 다가설 수 있으며 교회 봉사의 의미가 더욱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1)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9473505>

2)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 교회탐구센터, '교회의 약한 고리, 3040세대의 신앙생활 탐구', 2022, 12. 9

1.[미래 직업 보고서]

2.[지방 소멸위험 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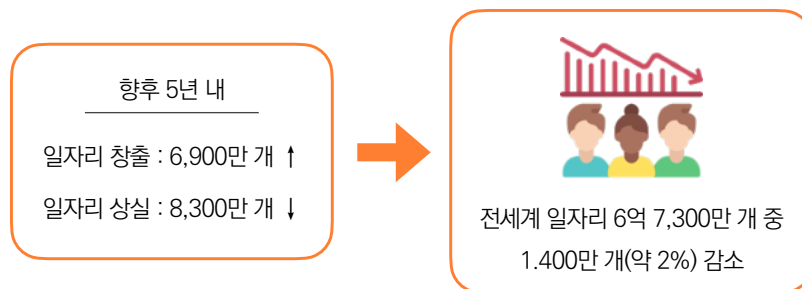
3.[미국 개신교인의 온라인 교회에 대한 선호도]



## 향후 5년간 세계에서 일자리 1,400만 개 줄어들 것

- ▶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27개 산업군과 45개 경제권 내 1,13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8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미래 직업 보고서 2023'을 최근 발표했다.
-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중 향후 5년 내(2027년까지) 6,9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고, 8,3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자리 1,400만 개가 순감소 하는 셈인데 전 세계 일자리(6억 7,300만 개)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림] 세계 일자리 창출 및 이동 예상 (2023~2027 기준)



\*자료 출처 : WEF(세계경제포럼), Future of Jobs Report 2023, 2023.05

## ◎ 인공지능·기술·정보 관련 전문가 늘어나고, 은행·우체국·계산원 등 사라질 것

- ▶ 자동화, 디지털화 기술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향후 5년 내 나타날 '새로운 직업'으로는 'AI 및 기계학습 전문가'가 1위로 꼽혔고, 다음으로 지속 가능 전문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석가 등의 순이었다.
- ▶ '은행원'(1위), '우체국 직원'(2위), '계산·매표원'(3위) 등 사무직은 '사라질 직업' 상위권에 랭크됐다.

[표] 향후 5년간 나타날 새로운 직업과 사라질 직업 (2023~2027 기준)

	새로운 직업	사라질 직업
1	인공지능 및 기계 학습 전문가	은행 창구 직원 및 관련 직원
2	지속 가능성 전문가	우체국 직원들
3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석가	계산원 및 매표원
4	정보 보안 분석가	데이터 입력 담당자
5	핀테크 엔지니어	행정 및 집행 사무국
6	데이터 분석가 및 과학자	자재 기록 및 재고 보관 사무원
7	로봇 공학자	회계, 부기 및 급여 담당자
8	빅 데이터 전문가	국회의원 및 공무원
9	농업 장비 운영자	통계, 재무 및 보험 사무원
10	디지털 혁신 전문가	방문 판매, 뉴스 노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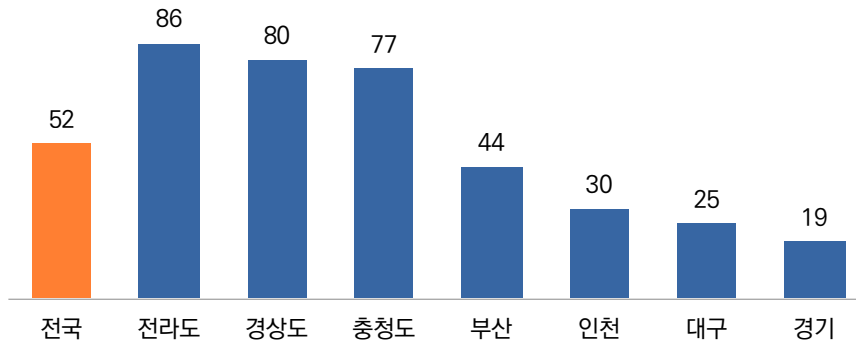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WEF(세계경제포럼), Future of Jobs Report 2023, 2023.05



## 소멸위험 지자체, 전국 절반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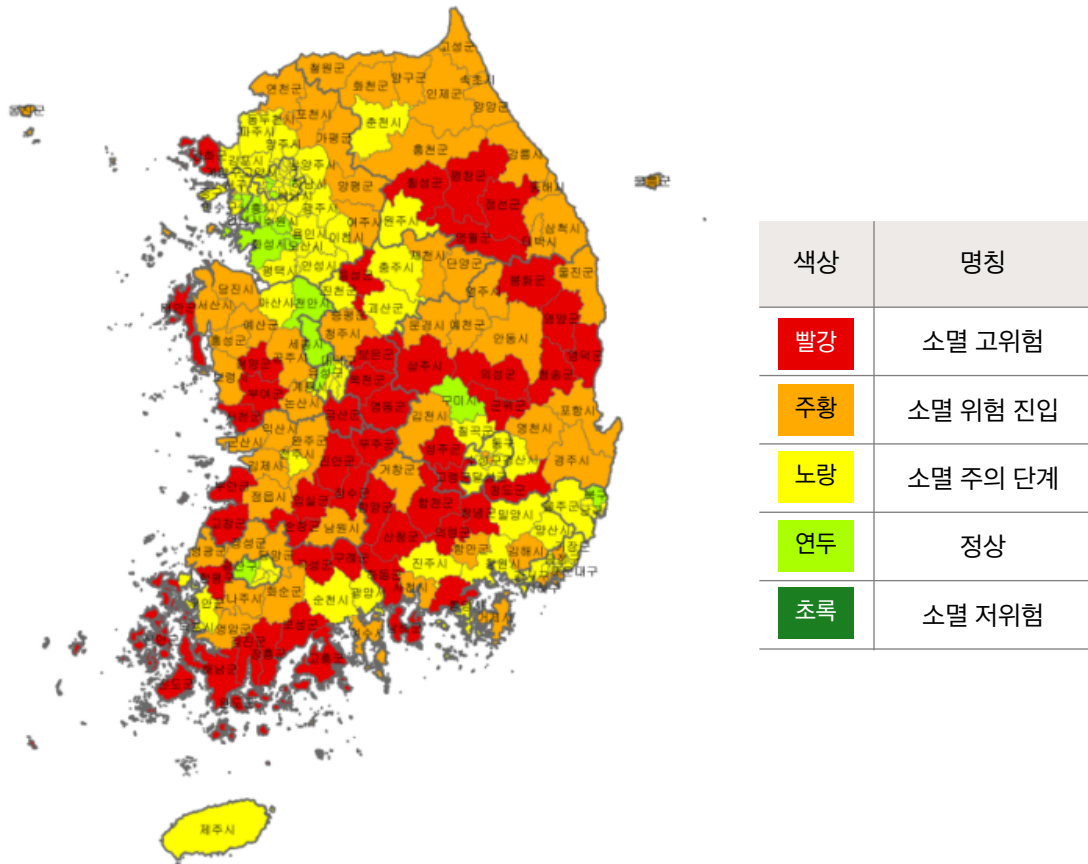
- ▶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 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118곳으로 전체 228개 시군구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0.5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다.)
- ▶ 소멸위험 지역은 전라도(86%)와 경상도(80%)가 80%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충청도가 77%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아직 30% 미만으로 양호하나, 인천에서도 강화/옹진군 등이 추가되면서 지방 소멸의 안전지대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시도별 소멸위험 지역 비중 (%)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통계로 본 지역고용\_지방 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2023.03.31.

[그림] 시군구 기준 지방 소멸위험 현황 (2023.2)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통계로 본 지역고용\_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2023.0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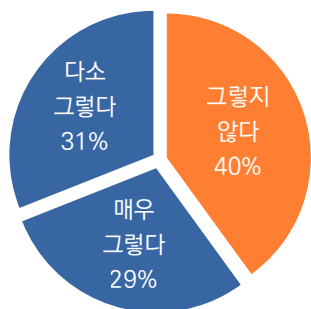


## 미국 개신교인 10명 중 4명, '출석교회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면 참석하지 않겠다!'

- ▶ 코로나19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렸던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가 3년 4개월 만에 해제되었다(2023. 5. 5). 지난 4월 미국 바나그룹이 개신교인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는데, 40%의 응답자가 '출석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한다면 참석하지 않을 것' 이라고 응답했으며, 60%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그림] 온라인 예배에 대한 태도 (미국 개신교인)

Q : 출석교회가 더이상 대면 예배를 하지 않을 시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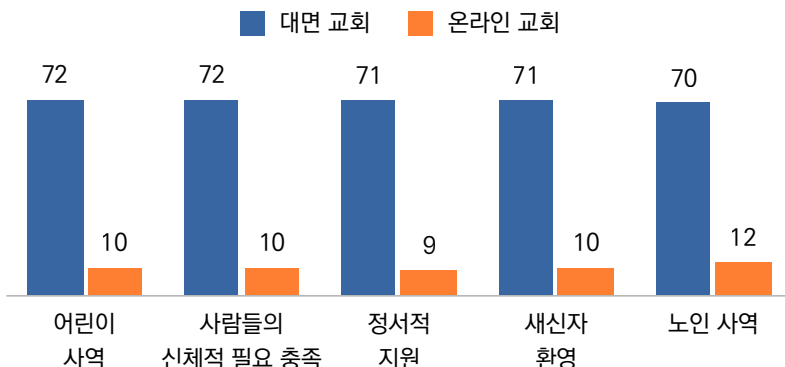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바나그룹(Barna Group), 40% of Christians Wouldn't Attend Their Church if It Was Solely Online, 2023.04.12.  
 (https://www.barna.com/research/in-person-over-online-church/)

### ◎ 온라인보다 대면 사역이 교회 전 사역 영역에서 더 효과적!

- ▶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사역 활동 분야를 제시하고, 대면 사역과 온라인 사역 중 어느 것이 더 의미가 있을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대면 사역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특히 '어린이 사역' 72%, '사람들의 신체적 필요 충족' 72%, '정서적 지원' 71% 등에서 대면 사역이 온라인 사역 대비 훨씬 의미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교회에서의 대면 사역의 강점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이다.

[그림] 대면 교회 vs 온라인 교회 사역 비교\*\* (각각 '더 의미있음' 비율, 상위 5위, 미국 개신교인, %)



\*자료 출처 : 바나그룹(Barna Group), 40% of Christians Wouldn't Attend Their Church if It Was Solely Online, 2023.04.12.  
 (https://www.barna.com/research/in-person-over-online-church/)

\*\*3점 척도임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41호 \(2023년 5월 1주\)](#)

- 내년 총선 결과 기대, 미국 국민 방문 평가 등

[집권 2년차 최우선 과제, 38.7%가 '경제 활성화' 꼽아](#)

국민일보\_2023.05.08.

◎ 사회 일반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통화하십니까?...평균은 '주 2.2회'](#)

연합뉴스\_2023.05.07.

["사회에 대한 불신이 청년 우울감 높인다...신뢰 낮을수록 우울"](#)

MBC뉴스\_2023.05.07.

['1% 유투버'는 7억 넘게 버는데...절반은 年 40만원 번다](#)

중앙일보\_2023.05.07.

[스쿨존 사고 매년 수백 건...‘민식이법’ 4년, 달라진 게 없다](#)

중앙일보\_2023.05.06.

[10명 중 4명만 대학 간다...다문화 여성서 자녀로 눈 돌린 정책](#)

중앙일보\_2023.04.27.

[노인이 불행한 선진국...적은 복지 지출, 노인 부문 더 적은 나라는?](#)

한겨레\_2023.05.08.

["음주운전은 중독, 한번만 하는 사람 없다" 재범률 실태](#)

국민일보\_2023.05.08.

◎ 청년 / 청소년

["한-아세안 청년,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 보여"](#)

연합뉴스\_2023.04.27.

["가족과 함께 게임 즐기는 아이가 과몰입 경향도 적다"](#)

연합뉴스\_2023.05.05.

[집콕·혼밥·운동부족...아동청소년 87% 행복지수 '하'](#)

연합뉴스\_2023.05.04.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부모님과 함께 놀러갈 때"](#)

연합뉴스\_2023.05.02.

[지수·안유진이 취했다...'초통령 술방' 본 8살 아들 충격 질문](#)

중앙일보\_2023.05.03.

[초등학생 10명 중 7명, 여전히 교실서 마스크 쓴다...“벗으면 어색”](#)

조서비즈\_2023.05.03.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업 / 경제

[2030 절반 이상 “부동산 투자 의향”…금리가 가장 큰 변수](#)

매일경제\_2023.05.08.

[인천 빌라 월세 받는 중국인 여학생…8살 어린이도 아파트 구입](#)

한국경제\_2023.05.07.

[“AI, 은행원 등 대체…5년내 일자리 1400만개 사라진다”](#)

동아일보\_2023.05.02.

[비정규직 52% “빨간날 유급휴가 못 받아”](#)

연합뉴스\_2023.05.04.

[2030 퇴사 속출…퇴직대행서비스까지?](#)

연합뉴스\_2023.05.08.

[직장인이 본尹정부 노동·일자리 정책 '42.8점'](#)

연합뉴스\_2023.05.07.

[출근 시간 90분 넘는 직장인... 40%가 “이직할래요”](#)

조선일보\_2023.05.06.

[“점심시간도 놓칠 수 없죠” 직장인 자기계발 열풍 이어져](#)

조선에듀\_2023.04.19.

[“도저히 값을 돈이 없어요”...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매일경제\_2023.05.08.

◎ 건강

[“넘어지면 큰일”…어버이날 선물로 ‘낙상 백신’ 어때요?](#)

동아일보\_2023.05.07.

[“조울증? 잘 관리하면 ‘불편’일 뿐…정신병 편견이 더 힘들어”](#)

동아일보\_2023.05.05.

[약지·새끼손가락 저린 사람 많다던데… 원인은 '이것'](#)

헬스조선\_2023.05.07.

◎ 기독교 / 종교

[美 개신교 목회자 10명 중 6명 “설교·강의 가장 선호”](#)

기독일보\_2023.05.01.

[美 개신교인 77% “십일조는 성경적… 지금도 적용돼”](#)

크리스천투데이\_2023.04.28.

◎ 기획기사 : 기후변화 멸종위기종 인간, (국민일보)

- [1. “기후위기, 미래세대 인권 침해 인종차별보다 심각” \\_2023.04.25.](#)
- [2. “우리의 섬은 가라앉는다” 사이바이섬 원주민의 편지 \\_2023.04.26.](#)
- [3. “韓 2050년 40만명 거주지 밀물 때 잠긴다” \\_2023.04.27.](#)
- [4. 태양광·캔 보증금·자전거… ‘기후악당’ 꼬리표 땀 네덜란드 \\_2023.05.01.](#)
- [5. 북극곰 오히려 증가했다?... 기후위기 회의론의 진실 \\_2023.05.02.](#)
- [6. 실천 않는 한국인... ‘걱정이네’하면서 커피 테이크아웃 \\_2023.05.03.](#)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에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역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가인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신규 후원 |

강주화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